

# 한국어와 영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gender) 역학\*

송 경 숙  
(동의대학교)

## Abstract

**Song, Kyong-Sook.** 2003. **Dynamics of Gender, Men and Women, in Korean and English Cyber Communicat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2). The present study explores dynamics of gender, men and women, in Korean and English cyber,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This study first discusses some major features of CMC with reference to anonymity, accessibility, and social decontextualization. This paper then investigates gender differences with focus on synchronous CMC vs. asynchronous CMC, gender roles, gender equality, and gender ideology. As Herring (1993, 1994) notes, this study confirms that despite the democratic nature of CMC, the real-world power hierarchies carry over into the virtual communities, and gende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yberspace communication. The male-gendered style is authoritative and self-confident, whereas female-gendered style has two aspects of supportiveness and attenuation.

**Keywords:** cyber,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gender equality, gender differences, genderlect, Internet Relay Chat(IRC)

K C I

## 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은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대인간 의사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제공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전 세계를 거대한 정보바다로 구축하여, 국가 개념을 넘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며,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사이버,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은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전자담화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의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이버상의 언어생활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관찰되고 있다.

언어와 성(性, gender)에 대한 연구는 면대면 의사소통에 기초한 성별차(gender differences)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행되었다(김규현·서경희 1996; 민현식 1996; 송경숙 1996; Coats 1986; Eckert 1990; Lakoff 1975; Tannen 1990, 1993 등). 텍스트 기반 CMC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전통적인 구별을 약화시키고, 물리적·청각적 단서들의 부족으로 사이버 의사소통자의 성별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CMC에서는 성 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Hall 1996; Herring 1993, 1994, 1996b, 1999, 2001, 2003 등). 한국어 CMC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언어활동 및 성별차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차와 성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sup>1)</sup> II장에서는 CMC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CMC에서의 성 역할을 동시성 CMC 대 비동시성 CMC, 성 역할, 성 평등, 성 이데올로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 및 논의된 것을 요약한다.

## II. 사이버,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은 컴퓨터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Herring(2001)이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sup>2)</sup> CMC는 활자화된 단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텍스트에 기초한 CMC에 집중되어 왔다. CMC는 동시성(synchronous)과 비동시성(asynchronous)으로 대별되는데, 동시성 CMC에는 대표적으로 채팅(IRC), MUDs, MOOs가 포함되고, 비동시성 CMC에는 대표적으로 이메일(email), 토론리스트(discussion list, DL), 뉴스그룹(newsgroups, NG)이 포함된다. 한국어와 영어 CMC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3)</sup>

1) CMC에서의 성별차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 답변의 진실성과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본 논문에서 양적 조사는 영어 CMC에 대한 Herring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한국어 자료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에 의해 주로 수집되었다.

2)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comprises a variety of interactive socio-technical modes including e-mail, discussion lists and newsgroups, chat, MUDs (Multi-User Dimensions) and MOOs (MUDs, Object Oriented), ICQ (I Seek You), and IM (Instant Messaging). Of these, e-mail and discussion groups have been in existence since the early 1970s; chat, social MUDs and MOOs date to the late 1980s; and ICQ and IMs were introduced in the mid-1990s. All these CMC modes are textual, involving typed words that are read on computer screens (Herring 2001).

3) CMC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자질에 대한 연구는 구분관(2000), 노형남(2000), 송경숙(2002a, 2002b, 2002c, 2002d), 안정근(2000), 이정복(2002), 이진성(1999, 2001), 한성일(2003), Condon and Cech(1996), December(1995), Herring(1993, 1994,

CMC는 의사소통에서의 민주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지적을 중심으로, CMC의 특성을 Herring(1993)은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CMC의 특성은 접근가능성으로, 참여자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게 한다. 둘째, 사회적 탈맥락화로, CMC 참여자의 정체성은 실제 이름, 성별, 거주지와 관련 없는 로그인(login)한 아이디와 회신주소 외에는 드러날 필요가 없다. 심지어 CMC는 메시지에 담기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단서(예: 억양, 필체나 목소리의 품위)를 숨긴다. 이런 특성이 CMC를 덜 개성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CMC에는 합의에 의한 사용상의 규정이 미비하므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넷째, 전자 네트워크에서는 명백한 검열이 아직 드물므로, CMC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인 특성이 강하다.

좀더 복잡한 형태에서 동시성 CMC는 가상적 공동체(virtual communities)를 형성하는 전 세계로부터 참여하는 개인들을 포함하고(Rheingold 1993), 동시성 텍스트적 대화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상호교류자들 간에 일어나므로 '상호작용적 문자담화(interactive written discourse)'라 한다(Ferrara *et al.* 1991). 상호작용적 문자담화인 채팅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릴레이 채팅(internet relay chat, IRC)이다. IRC의 문자 및 구두 언어적 특성은 축약화, 간결성, 병렬적 대화의 연속 구조, 높은 지칭성, 말하기와 글쓰기의 상호작용, 시간과 공간 개념의 상호작용 등으로 요약된다(송경숙 2002b; Song 2001a; Werry 1996 등). 특히 IRC에서는 공간적 맥락의 비공유, 배경적 지식과 준언어적 단서의 부족, 익명성의 보장, 네티켓(netiquette)의 비준수, 언어의 비인격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 III.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성 역할

CMC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CMC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주의적 견해, 곧 CMC는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매체보다 더 민주적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이끈다는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Herring 1993). 이 장에서는 동시성 CMC 대 비동시성 CMC, 성 역할, 성 평등, 성 이데올로기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와 성 역할을 논의한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자의 성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Herring (2001)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참여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언어적 자질에는, 면대면 상호작용에서와 유사하게, 다변성, 강한 주장, 불미스런 언어사용, 예의, 무례함, 스마일과 웃음의 이모콘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 어떤 자질은 남성과 좀더 연관되고, 어떤 자질은 여성과 좀더 연관되는데,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별을 나타낼 수 있는 가명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성 중립적인 가명을 사용하여도 상대 참여자는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sup>4)</sup>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경적 지식과 공간적 맥락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아이디와 가명을 근거로 상대방 성별을 추측한다. 예를 들면,<sup>5)</sup> 아래

---

1996a, 2001, 2003), Song(2000, 2001a, 2001b, 2001c, 2001d, 2001e, 2002), Werry(1996), Yates(1996) 등을 참고.

4) 여성은 성 중립적인 가명을 성적 관심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스런 이름을 성적 관심을 유인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Herring 1998).

의 한국어 채팅 (1)에서 아이디가 sunshine인 참여자는 여성으로 간주된다. sunshine이 “욕할 수가 있다 그랬지!!!!”라며 반말을 하자, 82radoh는 “여자가...커헝”라며 놀라움을 나타낸다. 그러자 sunshine과 3260kom은 사과하면서 (“죄송, 쏘오리”) 수습하려 한다.

- (1) sunshine: 하하웃기기도하여라!!!!  
 3260kom: 잼나쵸?ㅋㅋㅋ  
 14oojin: 빠하하  
 sunshine: 욕하는수가 있다그랬지!!!!!!  
 82radoh: 여자가...커헝  
 3260kom: 죄송  
 sunshine: 쏘오리.....  
 3260kom: 저두...  
 14oojin: 뭐 여자도 욕할수 있지...  
 sunshine: 마자마자  
 3260kom: 구려구려  
 14oojin: 사실 욕할만 했어...

끝이어 14oojin이 중재를 시도하자(“뭐 여자도 욕할수 있지.....”), sunshine과 3260kom이 맞장구친다. sunshine의 실제 성별 여부보다는 sunshine이 여성이란 전제하에 참여자들은 채팅을 지속하고 성역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상대방 성별을 캐릭터에 의존하여 유추한다. 영어 예를 들면, MUD에서 여성을 가장하는 캐릭터는 좀더 중립적이고 애정스런 동사(예: hug)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남성 캐릭터는 좀더 폭력적인 동사(예: kill)를, 특히 다른 남성에게 대한 행동에서 사용한다(Cherny 1994). 한국어 예를 들면, 채팅 (2)에서 아이디가 ‘진달래’인 참여자가 자신을 ‘언니’라 소개하자, Onlyyou는 진달래가 “캐릭터가 남자라서” 남자로 생각했다며 놀라움을 나타낸다.

- (2) Onlyyou: 두분다 남자인가?  
 진달래: 학생  
 Onlyyou: 네?  
 진달래: 진달래 언니다  
 Onlyyou: 아...이런...죄송  
 Onlyyou: 캐릭터가..  
 Onlyyou: 남자라서...  
 진달래: ㄱ.ㄱ.ㄱ.ㄱ.  
 Onlyyou: 죄송해염...  
 진달래: 아니  
 진달래: 학생 그래서 중국 같이 가자구  
 Nightangel: 근대 진달래님 캐릭터 바꾸세요  
 진달래: 왜여  
 Nightangel: 남자...

5)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영어 자료와 채팅 예들은 가능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대로 제시한다. 채팅자의 아이디는 부분적으로 바뀌었고, 아이디와 발화 사이에 공간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분석과 해설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편의상 밑줄을 그었다.

Nightangel: 웃기잖아요...  
 Onlyyou: 아..  
 Nightangel: 여자분이  
 진달래: 그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Nightangel은 진달래에게 “캐릭터 바꾸세요”라고 요청하고, 여자가 남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웃기잖아요”라고 지적한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족과 공간적 맥락의 비공유 상황에서, CMC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성별을 아이디어와 캐릭터에 기초하여 추측한다.<sup>6)</sup>

### 1. 동시성 CMC 대 비동시성 CMC

CMC에서 관찰되는 성별차와 성 역학을 동시성 대 비동시성 CMC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우선 토론 리스트(discussion lists, DL)와 뉴스그룹(news group, NG)이 대표적인 비동시성 CMC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별차를 Herring (200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동시성 CMC에서 남성들은 좀더 긴 메시지를 올리고, 혼성 그룹에서는 주로 토론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남성들은 의견을 사실처럼 강하게 주장하고, 모욕적인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적대적(adversarial)’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Herring 1992, 1993, 1996a, 1996b, 2001, 2003; Kramarae and Taylor 1993; Savicki *et al.* 1996 등). 그러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메시지를 올리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사과하고, 상대방을 지원하면서, ‘정렬(aligned)’된 태도를 주로 취한다(Hall 1996; Herring 1993, 1994, 1996a, 1996b, 2001; Savicki *et al.* 1996 등).<sup>7)</sup>

Herring(2001)에 의하면, 비동시성 CMC에서 참여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단서가 되는 공통된 장치는 예의(politeness)이다(Brown and Levinson 1978/1987). 여성은 감사와 사과를 좀더 빈번하게 나타내고, 예의를 위반했을 때 당황해 한다. 그리고 여성이 다수인 그룹에서는 정중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 올리기, 곧 포스팅(posting)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Hall 1996; Herring 1996b). 반면, 남성들은 예의에 관심을 덜 갖고, 모욕과 비난 같은 체면(face) 위협적 행동을 빈번하게 하며, 온라인상의 행동규정을 위반하고, 플래밍(flaming)을 즐기기가 한다.<sup>8)</sup> 남성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체면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Herring 1994, 1996a, 1996b, 1999).

예를 들면, 아래 (3)는 비학술적 DL에서 다른 남성의 메시지에 대응하여 한 남성이 올린 것인데, 빈정거림, 모욕하기 등의 남성적 스타일이 관찰되고 있다(Herring 2001).

(3) >yes, they did...This is why we must be allowed to remain armed... who is going to help us if our government becomes a tyranny ? no one will. oh yes we \*must\* remain armed. anyone see day one last night abt charlestown where everyone/s so scared of informing on murderers the cops have given up ? where the reply to any offense is a public killing ? knowing you/re not gonna be caught cause everyone/s to afraid to be a witness ? yeah, right, twerp.  
 > ----[Ron] “the Wise”---- what a joke.

6)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명 사용에 수동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한성일(2003)은 지적한다.

7) 한국어 비동시성 CMC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반적으로 관찰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참여자 성별에 관한 조사는 응답의 진실성과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8) 플래밍은 강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외설적이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비학술적 DL에서 다른 여성의 메시지에 대해 한 여성이 올린 (4)에서는, 감사표현, 지원, 집단에 호소, 설명된 주장 등의 여성적 스타일이 관찰된다(Herring 2001).

(4) Aileen,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 have really enjoyed all your posts about Women's herstory. They have been extremely informative and I've learned alot about the women's movement. Thank you! -Erika DITTO!!!! They are wonderful! Did anyone else catch the first part of a Century of Women? I really enjoyed it. Of course, I didn't agree with everything they said...but it was really i n f o r m a t i v e .  
Roberta~~~~~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Herring(2001)은 지적하기를, CMC에서 참여자들은 여성을 냉대하는 경향이 있다. 곧 혼성의 DL에서 여성들은 적은 수의 메시지를 올린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반응을 받지 못할 때, 포스팅을 지속하는 경향이 낮고, 포스팅을 지속하더라도 남성에게 비해 반응을 적게 받는다(Herring 2003).<sup>9)</sup>

동시성 CMC에서 나타나는 성별차를 Herring(2001)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동시성 CMC의 대표적인 예는 IRC인데, 참여자의 성별이 IRC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팅자들은 상대방의 나이(age), 성별(sex), 지역(location)에 대해 “a/s/l”로 종종 질문한다. 더구나 채팅자들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을 나타낸다(Herring 1998). IRC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3배나 더 웃음 짓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은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화행에서 여성보다 3배나 더하고, 좀더 모욕적이고 성적인 지시어를 사용한다(Herring 1998).<sup>10)</sup>

한국어 채팅의 예를 들면, 아래 (5)에서 좋아하는 만화 유형에 대한 채팅 도중, happysad97는 “막 싸우고 그러는거”를 좋아한다고 하자, timelove25는 happysad97가 남자인지 질문한다.

(5) happysad97: 무슨 만화 좋아하세요?  
timelove25: 장르 가리지 않아요.  
timelove25: 님은요  
happysad97: 저는 막 싸우고 그러는거요..ㅋㅋ  
timelove25: 남?  
happysad97: ?  
happysad97: 남자냐구요?  
timelove25: 네  
happysad97: 아뇨.  
happysad97: 여잔데요...ㅋㅋ  
timelove25: 네  
happysad97: 그쪽은요?  
timelove25: 79년생?  
timelove25: 저도 여

9) 남성 메시지에서 논쟁은 여성 참여를 저지시키는 반면, 예외에 대한 여성의 관심은 남성에게 의해 ‘전송용량의 낭비’로 인식되거나(Herring 1996b), 검열로 인식된다(Grossman, 1997; Herring, 1999).

10) 이것은 비동시성 DL에서 여성들의 지원적인 정렬된 담화 스타일과, 남성들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담화 스타일상의 차이와 유사하다(Herring 1996a, 1996b).

그러자 happysad97는 “남자냐구요? 아뇨. 여잔데요...ㅋㅋ”라고 대답한다. 성별에 대한 질문에 이어 참여자들은 상대방 나이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그리고 싸움하는 것을 다룬 만화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성 역할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형화된 이데올로기가 (5)에서 나타난다.

또한 CMC 담화 스타일에서 덜 의식적인 차이점도 관찰된다(Herring 2001). 아래 (6)는 여성들 간의 IRC로 지원, 감사, 스마일, 웃음, 애정적 행동 등의 여성적 스타일을 보여준다(Herring 2001).

(6) \* KikiDoe \*huggers\* beff to her death hahaah  
 <Beth\_> :)  
 <Beth\_> you guys are so great! \*happy sobs\*  
 <KikiDoe> beth dats cause we have you

대조적으로, 남성들 간의 IRC인 (7)은 모욕적 발언, 성적 지시어 사용, 폭력적 행동 등의 남성적 스타일을 나타낸다(Herring 2001).

(7) <wuzzy> any ladies wanna chat??  
 <[Snoopy]> fonz: she nice  
 <LiQuIdHeL> FUKCK YOU  
 <[Snoopy]> fuck you little boy  
 <LiQuIdHeL> NO FUCK YOU  
 <mature> snoopy u r ??????????????????  
 <[Snoopy]> its past your bedtime  
 <[Snoopy]> are you talking?  
 \*LiQuIdHeL kicks [Snoopy] in the nuts causing them to dangle out your nose like fuzzy dice on a rear view mirror...;) have a nice day

모든 여성과 남성 IRC 참여자들이 위와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사용될 때에는, 여성이나 남성이 한 성별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Herring 2001).

한국어 채팅에서 참여자의 성별 구별은 인칭대명사와 지칭어 사용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한국어 채팅에서 관찰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것은, 여성 참여자들이 겸양의 1인칭 대명사 “저”를 좀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면, 남성 참여자들은 “나”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sup>11)</sup> 예를 들면, (8)에서 gaul335는 “밥먹을 사람 손들어봐여”라 하자, 여성 참여자 rudlove, straitgirl, treemusic은 자신들을 “저”로 지칭한다.

(8) gaul335: 밥먹을 사람..손들어봐여  
 rudlove: 저  
 terribleman: 저..  
 doballt: 해서

11) 유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계층화된 특징은 사회 활동에서 예의와 화합의 중요성에서 반영된다. 이것은 또한 잘 발달된 경어법에서 나타나는데, 존대어와 비존대어 선택은 힘(power)과 결속력(solidarity) 개념을 반영한다(Brown and Gilman 1960).

terribleman: 밥 사줘요..  
 tpg234: 밥은 먹고 싶은데 수업 쌤시리  
 spamgirl: 저두여  
 rudlove: 저두  
 doballt: 첨부파일로 보내세요  
 terribleman: gaul335님 밥사줘요  
 treemusic: 저두 배고파여---

흥미롭게도 남성 참여자 terribleman이 여성을 가장하고 채팅할 때는 자신을 “저”로 지칭하지만, 이후 남성으로 성 정체성을 전환하여서는 “나”로 지칭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은 자신이 예의바른 사람으로 인식되고자하는 욕구를 남성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선행 연구 (Coates 1986; Lakoff 1975; Tannen 1990 등) 결과를 뒷받침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적이며, 성 역할이 보수적·위계적인 한국 사회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채팅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여성 참여자들이 상대 여성 참여자를 친족어 “언니”로 부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sup>12)</sup> 상대 참여자 성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 아이디어가 여성을 연상시키고 나이가 조금 위라고 생각되면 언니라 부른다. 아래 (9)에서 여성 참여자 kimhee는 조금 전에 참여한 tpg684가 자신보다 연상임을 인식하고는, tpg684의 성별에 관한 충분한 정보도 없지만, 언니라 부른다.

(9) tpg684 enter the chat room  
 tpg684: 이럴수가...  
 kimhee: 웃기네여  
 tpg684: 몇학년인가여?  
 kimhee: 01학번요  
 tpg684: 난 97학번인데...  
 kimhee: 언니네요 ㅋㅋㅋ  
 tpg684: 내가 군대갔다오느라  
 tpg684: 학교를 좀 오래 다니져  
 kimhee: 넹??

하지만 tpg684는 군에 갔다 왔음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성별을 간접적으로 밝힌다. 여성 참여자들이 상대방을 “언니”로 호칭하는 것은, 여성들이 구두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대감 형성 언어(rapport-talk)’과 ‘관계형성 언어(relationship-building talk)’를 주로 사용하여, 상호관계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어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Coates 1986; Lakoff 1975; Tannen 1990, 1993 등) 결과를 뒷받침한다.<sup>13)</sup>

## 2. 성 역할, 성 평등, 성 이데올로기

12) Herring(1998)에 의하면, CMC 참여자들은 실제로 성에 대한 단서들을 빈번하게 나타내는데, 평균적으로 텍스트의 3-4 줄마다 한번씩 자신의 성별을 나타내는 단서를 사용한다. 따라서 오래 동안 CMC에 참여하면 할수록 성별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

13) 또한 한국어 CMC에서 친족어 ‘오빠’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자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다. 여성 참여자나 여성을 가장하는 남성은 상대 남성을 ‘오빠’로 자주 지칭한다. 예를 들면, 여성 참여자 spamgirl이 상대 남성 doballt를 오빠로 부르자, doballt가 기분 좋아하고, idol4839도 doballt를 오빠라 부른다. spamgirl은 doballt가 대학교 2학년으로 같은 학년이지만, 자신보다 연상인지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빠라 부른다.

CMC에서의 성 역할과 관련하여 Herring(1993, 1994, 1998, 1999, 1991, 2001, 2003 등)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기반 CMC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전통적인 구별을 약화시키고, 물리적·청각적 단서의 부족으로 인해 CMC 의사소통자의 성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성 평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면대면 의사소통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성 평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민주적이며 성 평등은 가능한가?

CMC에서의 성별차를 참여의 양, 주제, 참여 방식과 관련하여 Herring(1993)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학술적 CMC에서의 참여와 이용량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성별상의 불균형은,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보다 훨씬 많고,<sup>14)</sup> 여성의 글이 남성의 글에 비해 평균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 참여를 방해하지 않지만, 여성은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한 다른 참여자의 반응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꺼린다. 그리고 여성이 올리는 글은 남성이 올린 글에 비해 평균적으로 적은 횟수의 반응을 받는다. 여성에 대한 여성의 반응은 전체 반응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DL에서 남성의 우월적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여성이 관심 갖는 주제는 낮은 비율의 반응을 받고, 전체적인 토론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결국 DL을 중심으로 한 CMC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고, 반응을 더 많이 보이며, 토론에서 더 좋은 안전들을 제안한다(Herring 1993).

둘째, CMC에서의 주제와 관련한 성별차를 Herring(1993)은 (10)과 같이 요약한다. 곧, 여성은 남성보다 토론의 특정 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다. 남성은 안전에 대한 토론에 가장 치중하고, 그 다음은 정보제시, 질의, 개인적인 것이다.

- (10) MEN: issues > information > queries > personal  
 WOMEN:personal > queries > issues > information

반면, 여성은 개인적인 것에 가장 집중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조언이나 정보를 요청한다. 여성들은 DL을 정보와 안전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제공처로 활용한다.<sup>15)</sup>

셋째, CMC에서 참여 방법에 따른 성별차는 다음과 같다(Herring 1993). 학술적 CMC에서도 의미 있는 성별차가 나타나고, 수사(rhetoric)나 언어전략 상에서도 메시지 작성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종종 드러난다. Herring(1992)은 관습적으로 ‘남성 언어(men’s language)’로 간주되는 문체의 특성과, ‘여성 언어(women’s language)’로 간주되는 문체의 특성을 아래 (11)처럼 제시한다. 여성 언어는 완화된 주장, 사과, 명시적 정당화, 질문, 개인적 오리엔테이션, 타인에 대한 지원으로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남성 언어는 강한 주장, 자신 홍보, 수사적 질문, 권위적 오리엔테이션, 타인에 대한 도전, 비꼬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 (11) WOMEN’S LANGUAGE      MEN’S LANGUAGE

14) 여성 회원이 LINGUIST에서 36%, MBU에서 42%를 차지하지만, 여성들은 수치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로 참여한다(Herring 1993).

15) 예를 들어, 여성이 운영하고 회원의 88%가 여성인 WMST(Women’s Studies List)에서도, 토론은 배제되고, 정보나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가 지배적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여성은 일단 개인적으로 보내질 것을 요청한다(Herring 1993).

attenuated assertions	strong assertions
apologies	self-promotion
explicit justifications	presuppositions
questions	rhetorical questions
personal orientation	authoritative orientation
supports others	challenges others
	humor/sarcasm

이러한 여성 언어의 특성은 LINGUIST에 여성 참여자가 올린 메시지 (12)에서도 관찰되는데, 개인적인 것에 집중된 위축된 주장으로, 질문 위주이며, 정당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Herring 1993).

(12) I am intrigued by your comment that work such as that represented in WFDT may not be as widely represented in LSA as other work because its argumentation style doesn't lend itself to falsification a la Popper. Could you say a bit more about what you mean here? I am interested because I think similar mismatches in argumentation are at stake in other areas of cognitive science, as well as because I s t u d y argumentation as a key (social and cognitive) tool for human knowledge construction.

한국어 채팅의 예를 들면, (13)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도중, 여우사탕은 우선 질문("어머 다 남자인가요?")의 형태로 참여자들이 남자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한 여자임을 질문의 형태("꽃이 뻤네?")로 나타낸다. 여우사탕은 여전히 질문 형태를 활용하면서 완화된 주장을 펼친다. 한국어 채팅에서 성 역할과 성 이데올로기는 은유를 통해 자주 나타난다. 여우사탕은 <여자는 꽃이다> 은유를 활용하고 있다.

(13) kason: 그래요. 다들반가워요.  
 boeing: 사탕님 반가요.  
 여우사탕: 어머 다 남자인가요?  
 여우사탕: 이럴수가..  
 boeing: 아니요.  
 여우사탕: 꽃이 뻤네?  
 여우사탕: 후후후  
 kason: 늑대우리에 여우한마리  
 kason: 아우  
 boeing: 억 다 남자네

그러자 kason은 <여자는 여우; 남자는 늑대> 은유에 기초하여 여자를 여우로 개념화하여 "여우한마리"란 표현을 사용하고, 남자를 늑대로 개념화하여 "늑대우리"란 표현을 사용하고, 채팅방을 "늑대우리에 여우한마리"라 묘사한다.

반면, 남성 언어의 특성은 LINGUIST에 남성 참여자가 올린 메시지 (14)에서 관찰되는데, 권위적인 오리엔테이션, 강한 주장, 비꼬기 등이 특징적이다(Herring 1993).

(14)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two (and only two) paradigms for the conduct of scientific inquiry into an issue on which there is no consensus. One is [...]. But, deplorable as that may be, note that either paradigm (if pursued honestly) will lead to truth anyway. That is, whichever side is wrong will sooner or later discover that fact on its own. If, God forbid, autonomy and/or modularity should turn out to be His truth, then those

who have other ideas will sooner or later find this out.

여성 언어의 특성은 여성에 의해 실제로 많이 수행되고, 남성 언어의 특성은 남성에 의해 많이 수행된다.<sup>16)</sup> 한국어 채팅 (15)에서, stevan2가 자기 반에 남자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라고 지적하자, kason은 “남자들 왕따당하겠네요”라고 우선 지적한다. 자신의 주장에 stevan2가 동의하자, kason은 강한 주장을 펼친다. 곧 많은 남자들 사이에 여자 한 명이 있으면 그 여자는 공주로 대우받지만,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는 하인이나 “왕따”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성역할에 대한 kason의 입장 표명이다.

- (15) stevan2: 올반에 남자가5명 있거든요  
stevan2: 히히히  
kason: 그런데 그렇게 땡땡쳐서 될려나  
kason: 그럼 다들 여자뿐인가요  
stevan2: 하하. 5명을제외하고는 여자..  
kason: 와우  
kason: 남자들 왕따당하겠네요.  
stevan2: 넵  
stevan2: 그렇죠.  
kason: 원래 남자 많은데 여자있으면 공주지만  
stevan2: 즈그들끼리 뽕뽕멍쳐요. 네  
kason: 여자많은데 남자있으면 왕따내지 하인들이되죠  
stevan2: 하하. 잘아네요?  
kason: 멍치면 사니까 그럴 수밖에  
stevan2: 네  
kason: 성격이 참 밝네요  
stevan2: 저요?  
kason: 내숭이 없어보이는데..  
stevan2: 감사. 네. 내숭  
kason: 좋은말 아닌데  
stevan2: 없어요. 앓!  
kason: 내숭없는여자는 매력이 팡이더라구요...  
kason: 애교도 없구  
stevan2: ...  
kason: 적당한 내숭과 애교를 겸비해야지만 좋은 남자 만나죠...  
stevan2: 넵. 잘알겠어요

그리고 stevan2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개방적 성격의 소유자임을 인식하고서, kason은 “내숭없는여자는 매력이 팡”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kason은 자신의 주장을 반복 (“적당한 내숭과 애교를 겸비해야지만 좋은 남자 만나죠...”)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자신의 성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펼친다.<sup>17)</sup>

16) Herring(1993)에 의하면, 여성들 글의 68%가 여성 언어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남성은 31%를 포함한다. 반면, 남성 언어의 특성은 남성들 글에서는 48%가 드러나고, 여성들 글에서는 18%에 머무른다. 여성들의 대다수 글(46%)이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혼합이지만, 남성들의 글은 14%만이 혼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17)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은 남성 못지 않게 상대방 공격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들은 헐박, 희롱, 놀림의 대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특성과 사용 양상은 참여 방법과도 관련된다. Herring(1993)에 의하면, CMC에서 토론은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남성 언어적 특성을 남용하는 소수의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LINGUIST 회원들은 안전 토론 이후 양성에서 각각 73%가 토론에서 적대적인 어조에 위협감이나 짜증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반응했다. 남성들은 학술적인 의사교환으로 간주하는 반면, 많은 여성들은 깊은 혐오감을 드러내고, 이런 유형의 의사교환을 피하고자했다.

CMC의 민주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마저도 학술적 CMC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않는다고 Herring(1993)은 결론짓는다. 학술적 CMC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힘과 위계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남성들이 자기 홍보와 적대적 전략을 통해 담화의 양과 수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접적인 대립에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여성들은 이런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참여를 회피하게 된다고 한다.

Herring(1994)에 의하면, CMC가 성별차를 중립화시킨다는 종래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CMC에서 서로 다른 언어 사용상의 스타일과 의사소통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다른 대화 규범들을 가진 담화 공동체,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위협(intimidation)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있어 서로 다르다. 남성은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개인적 공격보다는 학술적 의사소통의 일부로 간주하는 반면, 여성은 (16)에서처럼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인다(Herring 1994).

(16) That is precisely the kind of human interaction I committedly avoid. (...) I am dismayed that human beings treat each other this way. It makes the world a dangerous place to be. I dislike such people and I want to give them WIDE berth.

곧, 여성은 상대방 반응을 자신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혐오감은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성 역할의 문화적 규범으로 설명된다(Sheldon 1992). 또한 남아들은 직접적으로 대결하도록 격려를 받는 반면, 여아들은 예의바르고 양보하도록 교육받는다(Herring 1993).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메시지의 언어적 구조와 수사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여성과 남성은 CMC에서 서로 다른 독특한 언어사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Herring(1994)은 주장한다.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은 CMC 참여자 각자가 가진 고유한 스타일이 아닌, 분명히 '성별화(gendered)'된 스타일이다. '남성적 스타일 (male-gendered style)'은 적대적이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강경하고, 논쟁적이며, 단언적이다. 또한 남성의 메시지에서 문장이 길고, 남성은 매우 빈번하게 글을 올리며, 자신만만하고, 빈정거리기까지 한다. 아래 (17)은 학술적 DL에서 발췌한 것으로, 강한 단언("exactly, nobody"),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어투가 특징적이다(Herring 1994).<sup>18)</sup>

(17) [Jean Linguiste's] proposals towards a more transparent morphology in French are exactly what he calls them: a farce. Nobody could ever take them seriously -- unless we want to look as well at pairs such as \*pe're - me're\*, \*coq - poule\* and defigure the French language in the process.

---

상이 되기도 한다.

18) 남성적 스타일의 특징이 잘 반영된 비학술적 DL의 예는 (3)이다.

한국어 채팅 예를 들면, (18)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점에 관한 토론 도중, badguy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질투가 많다는 것을 우선 질문(“남자가 질투 더 많다는건 아시져 하루사리님?”)의 형태로 지적한다. 하루사리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자, badguy는 부연설명을 통해 동의를 유도한다(“남의 애인 장점은 자기 애인이 가졌음 하는거여”). 그리고서 badguy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기반복(self-repetition)을 구성한다(“보통 여자보다 남자가 질투 더 많아여”).

- (18) badguy: 남자가 질투 더 많다는건 아시져 하루사리님?  
 하루사리: 글세여...  
 왼손잡이: 음...  
 하루사리: 그렇게 장담은 못하죠  
 badguy: 남의 애인 장점은 자기 애인이 가졌음 하는거여  
 badguy: 보통 여자보다 남자가 질투 더 많아여  
 왼손잡이: -\_-;;  
 하루사리: 흠..진..편견이라구 생각하는데요  
 badguy: 근데 다른걸로 미화하누 숨기는 거져  
 badguy: 여자가 남의애 흘뜬으면 질투고  
 badguy: 남자가 흘뜬으면 사실이라고 하져  
 하루사리: badguy님은...다 아시나봐여? 사람들 마음을?  
 badguy: 이쿵...  
 왼손잡이: 하핫  
 하루사리: 그런말...쉽게 하는거 아닙니다.  
 왼손잡이: 한방 먹었다

또한 badguy는 ‘유형적 리듬(patterned rhythm)’을 구성한다(“여자가...질투고 남자가...사실이라고 하져”).<sup>19)</sup> 그리고 kason은 “근데 다른 걸로 미화하누 숨기는 거져”하며 단언적인 강한 주장을 펼친다. 결국 kason은 성 역할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문가처럼 강력하게 펼치는데, 하루사리는 질문(“다 아시나봐여? 사람들 마음을”)의 형태로 kason에게 도전한다.

남성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표현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영어 예는 (19)이다. 정보요청에 대한 남성의 답변으로, 권위적인 어조로 매우 강한 주장(“nothing... simply,...just”)을 펼친다(Herring 1994).

- (19) The NUGM Planning meeting was cancelled before all of this came up. It has nothing to do with it. The plans were simply proceeding along so well that there was no need to hold the meeting. That is m y understanding from talking to NOTIS staff just last week.

반대로, ‘여성적 스타일(female-gendered style)’은 지원(supportiveness)과 위축(attenuation)이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Herring 1994). 지원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공동체 형성의 행위이다. 위축이란 헤지

19) ‘유형적 리듬(patterned rhythm)’은 완전히 상이한 단어들이 선행 발화와 동일한 통사적·리듬미한 패러다임에서 발화되는 경우를 가리킨다(Tannen 1989)

(hedge)나, 의심하기, 사과하기, 질문하기, 모호한 표현 사용하기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는 학술적 DL에서 발췌한 것인데, 헤지, 모호한 표현 사용하기, 의심하기, 집단에 호소하기가 특징적이다. 이런 스타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별화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Herring 1994).<sup>20)</sup>

(20) [...] I hope this makes sense. This is kind of what I had in mind when I realized I couldn't give a real definitive answer. Of course, maybe I'm just getting into the nuances of the language when it would be easier to just give the simple answer. Any response?

이러한 여성적 스타일은 수신인이나 상대방의 체면욕구를 고려한 결과이다(Brown and Levinson 1978/1987; Goffman 1959, 1967). 곧 상대방에게 인가 받고 선호되고자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성별화된 행동의 극단적 예이지만,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Herring(1994)은 지적한다. 왜냐하면 CMC에서 참여자들은 성별화된 스타일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성별을 추론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CMC 의사소통자의 성 정체성은 완전히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21a)에서 여성처럼 가장하고 메시지를 올린 남성은, 한 개인에게 활력을 주고 좀더 정교한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데는 동료의 건전한 비판 만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Herring 1994).

(21) (a) there's nothing like a healthy denunciation by one's colleagues every once in a while to get one's blood flowing, and spur one to greater subtlety and exactness of thought.  
(b) I must confess to looking for the name of the male who wrote the posting that [Suzi] sent originally and was surprised to find a female name at the end of it.

(21a)의 메시지 작성자는 'Suzi'란 여성적 가명으로 사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는 (21b)에서 동료에 의한 비판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의 이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을 연상시키는 Suzi란 것을 보고서 놀랐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자신을 남자라 고백하는 한 참여자는 WOMEN이란 제목하의 DL에는 남성 참여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는 메시지 (22a)를 올린다. 하지만 자신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때때로 죄의식을 느낀다”고 토로한다(Herring 1994).

(22) (a) I sometimes feel guilty for taking up bandwidth..... I really enjoy this list (actually, it's the best one I'm on).  
(b) now that you've posed the question...how's one to know you're not a woman posing this question as a man?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와 고마움을 나타내지만, 매우 위축되어 있는 여성적 스타일이다. 그러자 다른 참여자는 (22b)처럼 “남성인척 이런 질문을 올리지만 여성이 아님을 어떻게 알죠?”라고 질문한다. 곧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와 고마움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올리는 사람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한다는 것이다.<sup>21)</sup>

20) 여성적 스타일의 특징이 잘 반영된 비학술적 DL의 예는 (4)이다.

21) Herring(1996b)에 의하면, 개별 DL 전체가 여성적 스타일과 남성적 스타일 중에서 하나의 스타일로 성별화될 수 있다. 이것은 남녀 중 한 쪽이 다수인 DL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성은 다수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그 스타일로 전

또한 남성과 여성은 상이한 의사소통 윤리(communication ethic)를 갖고 있다고 Herring(1994)은 주장한다. 여성은 (23)에서처럼 상대방의 바람과 감정에 대해 배려하는 데 가치를 좀더 부여한다(Herring 1994).

(23) If we take responsibility for developing our own sensitivities to others and controlling our actions to minimize damage -- we will each be doing [good deeds] for the whole world constantly.

반면에 남성들은 표현의 자유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가치를 좀더 부여하고, 솔직한 숨김 없는 표현, 그리고 지식 추구를 발전시키는 논쟁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 그리고 남성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외설적이며 부적절한 언어사용을 포함하는 플래밍을 즐기기가 까다롭다(Herring 1994).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발달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이 된 사이버,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성 역학을 한국어와 영어 자료에 기초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CMC의 특성을 접근성, 사회적 탈맥락화, 익명성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단서들을 숨김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인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상의 규정이 미비하여 감정을 숨김없이 나타내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검열이 적은 CMC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채팅은 축약화, 간결성, 겹치기식 병렬적 대화의 연속 구조, 높은 지칭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III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CMC에서의 성 역학을 동시성 대 비동시성 CMC, 성 평등, 성 역할, 성 이데올로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CMC에서 남성은 좀더 긴 메시지를 올리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메시지를 올리고, 완화된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을 지원하면서, 정렬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동시성 CMC에서 남성은 모욕적이고 성적인 지시어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상대방 주장을 지원하고 애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남성은 강한 주장, 자신 홍보, 권위적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남성 언어를 사용하여, 적대적·논쟁적이며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식의 남성적 스타일로 행동하는 반면, 여성은 완화된 주장, 질문, 개인적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 언어를 사용하여,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공동체감 형성을 시도하는 여성적 스타일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도전성에 대한 남성적 가치와, 사회적 화합에 대한 여성적 가치 사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점과 관련되며, 이러한 성별화된 스타일의 존재는 중

---

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적 관심의 DL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메시지를 간단하게 할 것이고, 남성 다수의 DL에서 여성들은 논쟁적이고 적대적일 수 있다. 개별 DL에서 적절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그 개별 DL에서 통용되는 스타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어느 쪽도 수적 우위를 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타일상의 혼합을 볼 수 있다. 남성 우위적 DL에서는 남성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본래 성 정체성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별화된 스타일은 유년부터 학습하여 뿌리 깊게 존재한다.

요한 함축성을 갖는다고 Herring(2001)은 지적한다. 곧, CMC가 익명이고, 성맹(gender-blind)이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소통 스타일이 성별을 나타낸다면, CMC에서 성별차는 존재한다(Herring, 1994). 결국, CMC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차는, 성 불균형(gender asymmetry)과 함께 높은 익명성과 외적으로 가해지는 힘 위계(power hierarchy)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Herring 2001).

그러면, CMC가 어떻게 하면 좀더 민주적이 될 수 있을까? Herring(1993)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에 연유한다는 사회적 지위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대부분이 서명을 담고 있거나 아이디를 통해 성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성별어(genderlects)하에서, 익명성을 유지한다고 성차별이 사라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CMC 참여자들은 무의식적인 스타일이나 어투 선택에서 성별적 정보를 나타낸다.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은 외적·내적으로 억압받는다. 위협적인 전략으로 답화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남성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은 무시 받고 검열을 받게 된다. 또한 여성은 말과 논쟁을 적게 하라는 내면화된 문화적 기대에 의해 또다시 억압받는다고 한다.

실제 세계에서의 성 위계(gender hierarchy)와 힘 위계(power hierarchy)는 가상 영역으로 전이되어 성 불균형(gender asymmetry)과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으로 나타난다고 Grossman (1997)은 지적한다. CMC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성들이 전자 네트워크에서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넓히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Herring(1994)은 제시한다. 곧 온라인 상에서 여성 중심의 게시판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 위협적인 표현 전술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네티켓의 확산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상의 공동체에서 공간적 맥락의 비공유, 배경적 지식과 준언어적 단서의 부족, 익명성의 보장, 네티켓의 비준수, 언어의 비인격화 등으로 인해 CMC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CMC에는 다양한 언어적, 사회·문화적 요소와 변인들이 복잡·다양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작용·관찰되지 않는 제약들이 존재하므로, 이 논문에서 논의된 CMC의 특징과 성의 역학이 다른 모든 유형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CMC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새로운 담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한 CMC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것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CMC, 언어와 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구분관 (2000). “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0, 293-318.  
김규현·서경희 (1996). “대화조직상의 성별 차이: 평가와 이해확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4(2), 77-111.  
노형남 (2000). “한국어 채팅 표현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107-137.  
민현식 (1996). “국어의 성별어(genderlect) 연구사.” 사회언어학 4(2), 3-29.  
송경숙 (1996). “영어와 한국어 대화에서의 성(性, gender)의 역학.” 사회언어학 4(2), 113-142.  
송경숙 (2002a). “전자담화에서의 전제(presupposition) 분석: 인터넷 채팅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2, 261-290.  
송경숙 (2002b). “상호작용적 전자담화의 특성: 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팅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18(2),

113-140.

- 송경숙 (2002c).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에서의 협력원리와 예의원리: 영어 인터넷 채팅(IRC)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4(2), 643-662.
- 송경숙 (2002d). "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팅에서의 프레임(frame) 분석." *텍스트언어학* 13, 73-105.
- 이정복. (2002). "전자편지 언어에 나타난 우리말 변용 현상." *사회언어학* 10(1), 225-261.
- 이진성 (1999). "약자, 약어 및 통신어에 대한 고찰:신세대 언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2), 189-223.
- 이진성 (2001). "한국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통신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9.(2), 119-141.
- 한성일 (2003).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 한국사회언어학회 2003년 가을학술대회 발표 논문.
- Brown, P. and Levinson, S. (1978/1987).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R. and Gilman, A.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253-276. Cambridge, Mass.
- Cherny, L. (1994). Gender differences in text-based virtual reality. In M. Bucholtz, A. Liang, L. Sutton and C. Hines (eds.). *Cultural Performances: Proceedings of the Third Berkeley Women and Language Conference*. Berkeley: Berkeley Women and Language Group.
- Coates, J. (1986). *Women, Men and Language*. London: Longman.
- Condon, S., and Cech, G. (1996). Functional comparison of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decision making interactions. In S. Herring(1996a) (ed.), 65-79.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Eckert, P. (1990). The whole woman: Sex and gender differences in variation.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 245-267.
- December, J. (1995). Units of analysis for Internet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4).
- Ferrara, K., Brunner, H. and Whittemore, G. (1991). Interactive written discourse as an emergent register. *Written Communication* 8.1, 8-34.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Grossman, W. (1997). *Net.war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all, K. (1996). Cyberfeminism. In S. Herring (e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147-170. Amsterdam: John Benjamin.
- Herring, S. (1992). Gender and participation in computer-mediated linguistic discourse.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 Herring, S. (1993).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3.2.
- Herring, S. (1994).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ringing familiar baggage to the new fronti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Miami, Florida.
- Herring, S. (ed.). (1996a).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Amsterdam: John Benjamin.
- Herring, S. (1996b). Posting in a different voice: Gender and ethic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C. Ess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5-145. Albany: SUNY Press.
- Herring, S. (1998). Virtual gender performances. Talk given at Texas A&M University.
- Herring, S. (1999). The rhetorical dynamics of gender harassment online. *The Information Society* 15(3), 151-167.
- Herring, S. (2001). Gender and power in online communication. *CSI Working Paper* No. WP-01-05.

- Herring, S. (2003). Who's got the floor in computer-mediated conversation?: Edelsky's gender patterns revisited. In S. Herring (ed.) *Computer-Mediated Conversation*. Cresskill, NJ: Hampton Press.
- Kramarae, C. and Taylor, H. (1993). Women and men on electronic networks: A conversation or a monologue?
- Lakoff, R. (1975). *Language and Women's Place*. New York: Harper Colophon.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 Savicki, V., Lingenfelter, D. and Merle K. (1996). Gender language style and group composition in Internet discussion group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3).
- Sheldon, A. (1992). Conflict talk: Sociolinguistic challenges to self-assertion and how young girls meet them. *Merrill-Palmer Quarterly*, 38(1), 95-117.
- Song, K-S. (2000). Metaphor and figurative expression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Pragmatics Conference, Budapest, Hungary.
- Song, K-S. (2001a). Repetition in Korean and English electronic discourse. *Discourse and Cognition*, 8(1), 161-194.
- Song, K-S. (2001b). Metaphor and metonymy in Korean and English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7(1), 37-60.
- Song, K-S. (2001c). Frames and schemata in cyber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8th LACUS(Linguistic Association of Canada and U.S.) Forum. Quebec University. Canada.
- Song, K-S. (2001d). Cognitive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gnitive Linguistics Conference. UC Santa Barbara, U.S.
- Song, K-S. (2001e). Framing in Korea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Text & Discourse Conference. UC Santa Barbara, U.S.
- Song, K-S. (2002). Gender ideology and gender identity shift in Korean cyber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Gender and Language Association Conference, Lancaster University, U.K.
- Tannen, D. (1989). *Talking Voices: Repetition, Dialogue, and Imagery in Conversational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 Tannen, D. (1993).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rry, C. (1996). Linguistic and interactional features of Internet Relay Chat. In S. Herring (e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47-63. Amsterdam: John Benjamin.
- Yates, S. (1996). Oral and written linguistic aspects of computer conferencing: A corpus based study. In S. Herring (e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29-46. Amsterdam: John Benjamin.

송경숙  
ksong@deu.ac.kr

접수: 2003. 09. 25  
수정본 접수: 2003. 11. 12  
게재결정: 2003. 12. 05